

식도암치료의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흉부외과학교실
 실영목, 조재일, 김효운, 박승준

원자력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7년 6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에 식도에 발생한 악성종양 342례를 수술 하였다. 이중 식도위 연결부위암 80례를 제외한 262례에 대해서 수술 방법의 차이 및 수술 후의 보조적 치료 여부 및 종류의 차이에 따른 추적 관찰 결과에 대해서 임상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남 여 성비는 247:15로 남자 환자가 전체의 94%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분포는 35세부터 78세사이로 평균 58.5세였다.

수술후의 병기별로 나누어 보면 Stage 0가 3례, Stage I이 8례, Stage IIa가 60례, Stage IIb가 11례, Stage III가 107례, Stage IV가 38례로 총 227례였으며 병이 말기까지 진행되어 처음부터 절제술을 생각할수 없었던 환자가 35례 였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Stage IV였으며 이들은 병기상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병변의 위치는 경부식도 2례, 상부식도 32례, 중부식도 121례였으며, 하부식도가 71례였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73례,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67례, 수술후 항암제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76례였으며, 수술후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병행한 경우가 10례 있었다. 수술사망에는 10례로 수술사망율은 4.4% 였다.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160명의 환자에 있어서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37%, 27% 였으며, Median Survival은 16.3개월 이었다. 식도 열공을 통한 식도 절제술 (Transhiatal esophagectomy)을 시행한 32명의 환자에 있어서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24%, 19%였으며, Median Survival은 12.5개월 이었다. 고식적 절제술을 시행한 34명의 환자에 있어서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17%, 3%였으며, Median Survival은 8.1개월이 였다. 병기에 따른 수술후의 생존률은, Stage 0 부터 Stage IIb 까지를 하나의 군으로 묶었을때 82례였으며, 이 군의 2년, 3년 생존률은 각각 49%, 37%였고, Median Survival은 18.8개월 이었으며, Stage III인 107례의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23%, 17% 였고, Median Survival은 12.6개월 이었다. Stage IV에 해당하는 38례의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16%, 0%였으며, Median Survival은 11.2개월 이었다.